지역 소식통

고창교육지원청, '교사 학생 관계 맺기' 연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9일, 초·중등 희망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놀이로 시작하는 사회정서교육-교사·학생 관계 맺기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교사와 학생이 즐겁고 의미 있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놀이와 활동 속에서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수에서는 △놀이 기반 사회정서교육의 이해, △학생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 사례, △교사와 학생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다루었다. 특히, 교사들이 직접 놀이에 참여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은 교실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아이디어로 이어졌다.

참가 교사들은 연수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한 교사는 "아이들과의 관계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오늘 배운 놀이 활동이 학생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원 12일 마감

정읍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9월 12일 마감된다. 시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6월 18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만 571명을 대상으로 총 228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지급액은 일반 시민 2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이며, 온라인(카드사·모바일카드)과 오프라인(카드사 은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9월 5일 기준 전체 대상자 중 9만 9516명(99%)이 신청했고, 960명(1%)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사용액은 약 178억원으로, 사용률은 79.3%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부안 지질명소, 격포리 페퍼라이트·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

부안군은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와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가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 되었다고 밝혔다.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35-1 일원에 위치한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는 화산암과 퇴적암이 파편처럼 한데 섞인 암석을 말한다. 뜨거운 용암이 물 또는 습기를 머금고 아직 굳지 않은 퇴적물을 지나가면, 용암의 열기로 퇴적물 내 수분이 끓어오르고 수증기가 폭발하면서 퇴적물과 용암이 뒤섞이고 굳어져 만들어지는데, 그 모습이 마치 후추(pepper)를 뿌린 것 같이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격포리 페퍼라이트 일원

이 지역은 페퍼라이트의 전형적인 특징과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구조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일반적으로 암석 경계를 따라 얇은 띠형태로 생성되는 페퍼라이트와는 달리 국내에는 보기 드물게 두꺼운 규모로 산출되어 지질유산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같이 지정 예고된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313-1번지 전북특별자치도학생해양수련원으로부터 190m지점의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썰물시 육지와 연결되는 곳이다. 솔섬은 후기 백악기(약 8,700만 년 전) 부안 지역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고, 섬 상부에 서식하는 소나무로 인해 솔섬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낙조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솔섬 하부의 응회암 내에는 마치 포도송이와 같은 형태의 다량의 구상구조가 발견되는데 이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화산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이 구상구조는 응회암이 단단히 굳기 전 열수가 모암을 뚫고 지나가면서 열수 내 철산화물이 침전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9일부터 '부안 격포리 페퍼라이트'와 '부안 도청리 솔섬 응회암 내 구상구조'를 지정 예고한다.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 공동체 거점 조성 첫발

정읍시, 정우 문화이음센터 기공식 개최

정읍시는 지난 9일 정우면 초강리에서 정우 문화이음센터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 사업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권병석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위원장, 내외빈과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안전기원제와 시삽식을 함께하며 사업의 시작을 축하했다.

정우 문화이음센터는 정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핵심으로 추진되는 주민공동시설이다. 총사업비 48억 6000만원(국비 28억원,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 1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737.81㎡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공유주방,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 주민공동시설과 휴식공간,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고, 스마트 버스정류장 쉼터도 마련된다.

센터는 단순한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여가·건강 프로그램을 비롯해 문화동아리 발표회, 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 찾아가는

공부방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돼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공동체 교류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문화·복지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우 문화이음센터가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지역 공동체가 화합하는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5대 중대재해 · 폭염 예방 총력

정읍시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산업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추락, 부딪힘, 끼임,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여름철 폭염 피해까지 고려한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12대 안전수칙에는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과 착용 철저, 개구부 덮개와 안전난간 설치, 지반 굴착 시 흙막이 및 안전조치, 기계·기구 작업 전 점검과 안전장치 부착, 화재 취약 시설 관리 및 감시자 배치, 밀폐공간 내 환기와 산소농도 측정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폭염 대응을 위해 △물 자주 마시기 △무리한 작업 피하기 △충분한 휴식 △시원한 작업환경 조성 △119 신고 등 5대 기본수칙도 병행해 온열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자체 시책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현장과 취약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전기준 준수는 물론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중대재해예방팀 관계자는 "정읍시청 중대재해예방팀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063-539-5995)

이학수 시장은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며 "12대 핵심 안전수칙과 '사업장 안전지킴이 제도'를 현장에 적극 접목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민 공익수당'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진행

고창군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 이번 지급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올해 지급 대상자는 총 1만2438명으로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농업 외 소득 여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최종 확정했다.

총 지급 규모는 약 67억 원이며, 군은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 폭우·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명절 소비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급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카드형으로 신청한 농업인은 본인 명의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을 방문해 상품권을 전달한다.

고창군은 매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해 왔으며, 농업인들로부터 "편리하고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급 대상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환경실천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호우 피해 비닐하우스 현장 방문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7일 새벽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 현장을 방문해 농가를 위로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부안읍 일대와 계화면 일부 지역에 빗물이 범람하면서 감자, 애호박 농가 등 다수의 시설하우스가 물에 잠겼다. 특히 장시간 이어진 강우로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작물 뿌리 부분이 침수되어 생육

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농가들을 위로하며 "예기치 못한 기상재해로 소중한 작물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군에서도 농가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배수시설 정비와 보상 절차 등 구체적인 대책을 농가와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단기 조치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52회 고창모양성제 준비 박차

고창군이 제52회 고창모양성제(10월 29일~11월2일, 5일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고창愛빠지다, 모양愛물들다'라는 슬로건 아래 고창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모양성의 빛과 색에 물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대표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모양성제에서는 조선시대 재현 프로그램인 '리턴즈 1453'을 비롯해, 조선시대 축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창읍성 쌓기 챌린지와 힘센 사람 선발대회가 대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MZ세대를 겨냥한 공연과 야간 프로그램,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패밀리존도 대폭 확대하여 준비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읍성 위를 걸으며 소망을 기원하는 답성놀이 이벤트, 전통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모양 주막·모양 다실, 패밀리존과 쉼터 공간도 마련된다.

/고창=김영식기자